

보도해명자료 (‘16.3.25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청년실업 난리인데 공공기관은 빈자리... (‘16.3.25. 머니투데이)

1. 기사내용

- “지난해 말 기준, 공공기관 현원이 정원 대비 약 1.4만명 부족하다”고 언급하면서,
 - “공공기관들이 정원을 비워 두는 것은 기획재정부가 매년 실시하는 공공기관 경영 평가 때문”이라고 보도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

- 공공기관의 정·현원 차이는 군입대·육아 휴직자, 기관별 채용 시차 등 다양한 인사운용 여건에 따라 발생할 수 있음
 - 군 입대로 인한 휴직자, 6개월 이상의 육아 휴직자, 임용 전 인력(채용형 인턴 등)은 기관 현원에서 제외되며,
 - 또한, 하반기 채용인력의 경우, 채용 전까지는 현원에 포함되지 않는 등 채용 시차에 따라 정·현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
- 한편, 정부는 기관의 정·현원차가 클 경우, 차년도 증원 협의 과정에서 부정적 요인으로 고려하는 등 적정 수준의 정원관리를 유도하고 있음

- 또한, 공공기관의 일자리 창출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하여,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각 기관의 노력을 다양한 평가지표를 통해 경영평가에 반영 중
 -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상 “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(2점)”, “정부권장정책(5점)”, “임금피크제 운영(2점)” 지표에서 공공기관의 일자리 창출 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 중이며
 - “전략기획 및 기관혁신(5점)” 지표에서는 민간부분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평가
- 따라서, “청년일자리 창출에 일정역할을 해야 할 공공기관을 경영평가로 옥죄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”이라는 기사의 지적은 사실과 다름

* 참고 : 2015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」 중 일자리창출 관련 지표

※ 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창조행정담당관 박덕열 과장 (044-203-5530)
김철영 사무관 (044-203-5537)

기획재정부 평가분석과

임상준 과장 (044-215-5550)
김경수 사무관 (044-215-5555)

참 고

「2015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」 중 일자리 창출 관련 지표

평가지표	조직·인적자원 및 성과 관리(비계량)
세 부 평가내용	비정규직의 정규직(무기계약직) 전환, 사회형평적 인력활용 확대, 시간선택제 일자리 및 유연근무제 활성화, 장시간근로 해소, 일과 가정 양립 등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 평가
평 가 착안사항	정규직 신규채용 실적(여성, 장애인, 지역인재, 고졸자 등) 비정규직 채용 규모 및 정규직 전환 실적 고졸자 채용확대 실적 장애인·여성·지역인재 등 열린고용을 위한 노력과 성과 인턴제도 등 채용형태의 다양화를 통한 고용기회 확대
평가지표	정부권장정책(계량)
세 부 평가내용	청년미취업자 고용 실적, 상용형 시간제 근무 실적, 장애인 의무 고용, 국가유공자 우선채용, 중소기업제품 등 우선구매,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구매,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등 정부권장정책 이행실적을 평가
평가지표	보수 및 복리후생(비계량) : 임금피크제 운영
세 부 평가내용	「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」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도입·운영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
평 가 착안사항	임금피크제 관련 신규채용 목표의 적절성 임금피크제 중장기 계획이 <u>청년일자리 창출에 지속적으로 기여</u> 하는지 여부 등
평가지표	전략기획 및 기관혁신(비계량)
세 부 평가내용	민간부문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의식·관행·제도 등의 불공정한 사항들을 개선하며, 사회공헌 활동, 균등한 기회와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
평 가 착안사항	기관의 설립목적사업 수행과 관련된 활동을 통한 민간부문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노력 - 공공기관 업무의 민간위탁, 투자사업 발주, 민간부문과의 파트너십 구축 등